

배포 일시 2025. 5. 29. (목)

담당자

즉시 보도 가능

진우성 사무국장 010-2017-0584

기자회견 대학생본부, 영남권 릴레이스피커 프로젝트 진행

- 권역별 순회 기자회견 프로젝트, 릴레이스피커 영남편 진행
- 영남권 20대 노동 관련 의제와 지방균형발전 등 목소리 내
- 이번 기자회견 끝으로 수도·강원·제주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순회 기자회견 프로젝트 성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학생본부(본부장 봉건우)는 5월 29일(목) 14시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본부장 주경민), 경북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본부장 박기정), 부산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본부장 한세인), 경남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본부장 김수원)가 공동 주최했다.

안도영 김해시 갑 대학생위원장과 류성국 前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역과 부산·울산·경남권역이 각각 최저임금 위반 순위 1위와 2위를 기록했다”며 “노동법 공백과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경민 대구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심화하는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특성을 살려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박기정 경북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학과 통폐합, 등록금 의존, 신입생 미달 등으로 경북 대학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고 밝히며 “지방대학 생존을 위한 재정 투자와 특성화 육성 정책 실시,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참여 구조 강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세인 부산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부산의 청년에겐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며 “학교 잔여 부지나 유희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기숙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김수원 경남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경남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둘씩 서울행 KTX에 몸을 싣는다” 며 “경남의 풍경에는 텅 빈 대학가와 고령화, 소멸 위기만 남아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수원 본부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투자, 정책 설계, 그리고 조정과 실행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봉건우 중앙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끝으로 전국 순회 기자회견 프로젝트, 릴레이스피커가 종료됐다” 며 “수도·강원·제주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까지 순회하며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봉건우 본부장은 “경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1020세대 청년·대학생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드러냈다.

붙임 기자회견 현장 사진. 끝.

